

자료 안내

1. 본 자료는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구매자들을 위해 제작된 무료 학습 자료입니다.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2018년)** - 6.89월 평가원, EBS 연계교재 완벽 반영, 2019 수능 대비 | 현자의 돌 시리즈 (2018년) 🔍

무료배송 | **소득공제**

임수민 (지은이) | 메가스터디교육 | 2018-09-20

**【참고서 사은품! 무민 북엔드, 신발 파우치 (3만원 이상부터)】**

정가 : 13,000원  
 판매가 : **11,700원** (10%, 1,300원 할인) | 무이자 할부 ?  
 마일리지 : 650점(5%) + 멤버십(3~1%) + 5만원이상 구매시 2,000점 ?  
 ↳ 국내도서 외 상품 포함 구매에 한함

세액절감액 : 530원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충족 시) ?  
 추가혜택 : 카드/간편결제 할인 ▶

이 책의 전자책 : **출간된 전자책이 없습니다.** [출간알림 신청](#)

반양장본 | 26쪽 | 300\*410mm | 70g | ISBN : 9791188449323

배송료 : 신간도서 단 1권도 **무료** ?  
 수령예상일 :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내일 수령 가능 ▶  
 88.1% 최근 1주 확률 (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반장**)

주문수량 : 1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선택하기](#)  
[보관함 담기](#)

**사라진 소망차**  
 오네스피, 엔딩왕립 추천 마르틴 베코 시리즈 출간 #10

★★★★★ **10.0**

- \* 고등학교참고서 주간 4위
- \* 고등학교참고서 top100 2주
- \* Sales Point : **12,740** ?
- \* 읽고 싶어요 (0명)
- \* 읽고 있어요 (0명)
- \* 읽었어요 (49명)
- \* 100자평 (3편) ✎
- \* 리뷰 (46편) ✎

[이 책 구매요?](#)

[알라딘에 팔기](#) [회원에게 팔기](#)  
[중고 등록 알림 신청](#)

(2018.10.14.자 알라딘 고등참고서 주간 4위, 60명의 최대 검토진이 참여한 고퀄리티 모의고사, 6회분 11700원 초저가 판매中)

2. 본 자료는 '수능&평가원 기출 中 직업윤리 문항' 모음 자료입니다.

3. 학습법:

- ① 해당 단원이 부족한 학생은 여러 번 반복 출력해서 푸세요.
- ② 모르겠는 문항은 전개년 연도별 해설(EBS)에서 학년도를 검색하여 해설을 참고하세요.

4. 본 자료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자, '교육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5. 본 자료는 비 상업적 목적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친구분들과 file을 공유하거나,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6. 본 자료에 수록된 문항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편집 및 수정된 선지, 새로 작성된 해설에 대한 2차 저작권은 현자의 돌에게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복제를 금합니다.

7. 자료 정오표: cucuzz.com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1.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9.19.번)

갑: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의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 서로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을: 농부는 밭일에 정통하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며 공인(工人)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는 없다. 관리는 이 일들을 하나도 못하지만 예(禮)에 정통하기에 이 일들을 다스릴 수 있다.

<보기>

- ㄱ. 갑은 모든 직업에 대한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한다.
  - ㄴ. 을은 각자의 직업 활동에서 전문성의 발휘를 중시한다.
  - ㄷ. 갑, 을은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을 강조한다.
  - ㄹ. 갑, 을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을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11.12번)

(가) 인간의 노동은 본래 자연 세계를 변형하는 주체적, 자율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결국, 노동자의 노동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 된다.

(나)



영화 '모던 타임즈'의 주인공인 찰리는 조립 라인에서 나사를 조이는 단순 작업만을 반복한다. 여기서는 인간의 노동을 중심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되고 파편화된 인간의 노동이 기계의 동작에 맞춰진다.

- ①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분업을 강화해야 한다.
- ②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 ③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여 사유 재산의 축적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신이 부여한 노동의 신성한 의미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 ⑤ 자발적 노동을 통해 노동의 본래적 가치의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

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14.11.20.번)

갑: 청렴은 목민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임무이며 모든 덕(德)의 원천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도 이를 이롭게 여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비는 청렴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보배로 삼는다.

을: 통치자는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군인처럼 공동으로 생활해야만 한다. 또한 세상의 금은을 탐해서도 호화로운 집에 기거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오직 자신과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 데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갑은 공직자의 업무 처리에서 공정정보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 ㄴ. 을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서 공사(公私)의 구별을 강조한다.
  - ㄷ. 갑, 을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중시한다.
  - ㄹ. 갑, 을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 절제(節制)를 강조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6.5.번)

#### 기업가의 바람직한 자세

최근 들어 일부 기업가들이 탈세, 회계 조작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어느 사상가가 주장한 ‘자본주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정신’은 칼뱅의 예정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본받아 기업가들은 ㉠ …(후략)…

- ① 정직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 ② 사치와 낭비 대신에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
- ③ 부의 축적을 지양하고 재산의 사회 환원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신성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 ⑤ 배금주의가 아니라 소명의식에 입각하여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5.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6.11번)

갑: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禮)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에 편입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 예에 합하면 재상에 올린다.

을: 사농공상(士農工商)에 관계없이 높고먹는 자는 관에서 벌칙을 내려야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비록 농사꾼의 자식이 벼슬길에 올라도 분수에 넘치는 것이 아니다.

- ① 갑은 사회적 역할 분담에 있어 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② 을은 선비가 육체노동을 피하고 학문에 전념할 것을 강조한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후천적 노력보다 타고난 능력을 중시한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세습적 신분에 따라 직업을 정할 것을 강조한다.
- ⑤ 갑, 을은 사회 분업의 폐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한다.

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2015.9.10번)

갑: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는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다.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을: 인간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신의 부르심[召命]에 노동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여러 가지 삶의 양식(樣式)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갑은 인간 소외의 극복을 위해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
  - ㄴ. 을은 노동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사유 재산 축적을 중시한다.
  - ㄹ. 갑, 을은 노동이 가진 생계 수단 이상의 가치를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11.11번)

갑: 누구나 본성적으로 이익만 좋아하기에 쉬운 일만을 원하고, 힘든 일을 싫어한다. 그래서 도(道)에 정통한 군자는 사람들마다 가볍고 무거움을 나누어[別] 서로 어울리게 한다.

을: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각자가 폴리스에서 자신의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여럿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① 갑은 백성들의 직업 활동이 욕망 충족과 무관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을은 각자의 덕을 발휘하여 국가 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강조한다.
- ③ 갑은 직업 분담에서 예(禮)를, 을은 각자의 탁월성을 중시한다.
- ④ 갑, 을은 사회적 분업을 토대로 한 사회 질서 유지를 중시한다.
- ⑤ 갑, 을은 구성원 각자가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

8.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6.6.8.번)

○ 인정(仁政)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경계를 바로잡으면 토지를 바르게 분배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바르게 지급하면 나라가 기름지게 될 것이다.

○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대인(大人)이 하는 일이 있고 소인(小人)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기 마련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보기>

- ㄱ. 직업 선택은 능력보다 선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ㄴ.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 ㄷ. 통치자는 구성원의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ㄹ. 개인의 노동은 사회 구성원들의 운택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9.8.번)

갑: 선왕(先王)이 예의(禮義)를 제정한 것은 백성들에게 구별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농부는 밭을 갈고, 상인은 물건을 팔며, 사대부는 정무(政務)를 담당한다.

을: 신(神)은 만사(萬事)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소명(召命)을 지정하였다. 우리는 신의 축복에 의해 양육되고, 우리의 노동도 신의 축복에 의해 번창한다.

- ① 갑은 재화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제할 것을 강조한다.
- ② 을은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직업 생활을 강조한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위적 규범에 따른 직분의 구별을 주장한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부의 축적이 직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 ⑤ 갑, 을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됨을 주장한다.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11.9.번)

갑: 자본주의 정신과 문화는 지속적, 체계적, 현세적인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 수단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에서 태어났다. 이 정신이 자본주의 윤리의 기초이다.

을: 자본주의에서 사유 재산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 ① 갑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적 삶을 위해 부(富)를 지향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자본의 형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필요에 따른 분배가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6.14.번)

갑: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향락과 낭비를 막는다. 이러한 금욕으로 인해 재화의 획득이 구원의 증표로 정당화되었다. 금욕을 바탕으로 한 영리 활동이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라면, 노동은 근대 노동자의 소명이다.

을: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씩씩이를 줄이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신하는 먼저 맡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 ① 갑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 ② 갑은 금욕적 태도와 자본주의 정신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③ 을은 직업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각자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할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정당화 근거를 금욕에서 찾는다.

12.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2017.11.13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욕하며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청렴은 큰 장사[賈]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신세지는 정[恩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움[私]이 행해진 것이다.

- ① 청렴은 목민관의 어떤 과오도 면책시켜 주는 지혜로운 덕목이다.
- ② 청렴한 목민관에게 청백리(淸白吏) 칭호는 관직 상승의 수단이다.
- ③ 포부가 원대하고 지혜로운 목민관은 부패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 ④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청탁(淸託)은 가능하다.
- ⑤ 목민관의 청렴은 애민(愛民)과 봉공(奉公)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6.14.번)

갑: 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와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을: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 ① 갑은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②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③ 을은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이 노동 소외의 원인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⑤ 갑은 소명 정신, 을은 노동 착취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본다.

14.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9.13번)

○ 만약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恒産]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편벽되고 악해질 것이다.

○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만든 갑옷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 선한 마음을 지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지 아니할 수 없다.

- ①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유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 ② 직업의 역할 분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
- ③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 ④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⑤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해야 한다.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2018.11.12번)

서술형 평가

문제: 사상가 갑, 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다면 항심(恒心)도 없게 된다.

을: 노동이 분업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용주는 자본가가 되어 지휘와 감독,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분업은 특수한 기능에 적합한 부분 노동자를 양산하며, 노동자는 작업장의 부속물로서 자본의 소유물이 된다.

학생 답안

사상가 갑, 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직업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 분담이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며, ㉡ 직업을 통해 백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을은 ㉢ 노동자는 생산 수단이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 자본가에게 예속된다고 보며, ㉣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은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019.9.7.번)

갑 :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귀함과 천함의 등급을 분별하게 하였다.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이 되어야 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이 단정하여 예에 합하면 사대부가 되어야 한다.

을 :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농부와 목수와 기술자는 각자 생산물이나 재능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힘을 쓰는 노력자(勞力者)와 마음을 쓰는 노심자(勞心者) 역시 각자의 수고로움으로 서로 기여한다.

- ① 갑 : 예(禮)를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역할 분담이 정해져야 한다.  
② 갑 :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③ 을 : 분업을 통해 사회적 직분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④ 을 : 노력자(勞力者)는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  
⑤ 갑, 을 :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정답

④⑤⑤③①  
③①⑤④②  
④⑤②④⑤  
②